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일 년에 한 번 멕시코인이 망자와 해후하는 까닭 '망자의 날' 이 던지는 삶과 죽음의 의미

박정훈

믹스킵(Mixquic),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도시 멕시코시티의 동남부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1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이 마을은 평소 같으면 꼼꼼한 여행객조차 눈길을 주지 않을 평범한 마을이다. 이 상투적인 마을이 해마다 10월 말과 11월 초에는 외지인들의 눈길을 끄는 특별한 마을로 변신한다. 사람들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는 까닭은 단 한 가지, 여느 마을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집과 공동묘지를 무대로 그로테스크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죽음'이고, 이 특이한 잔치의 이름은 바로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이다.

망자의 날은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서 기원한 명절로 오늘날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의 몇 나라, 멕시코와 중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 면면히 쇠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데, 아스테카 문명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죽음에 대한 철학은 대체로 유사성을 보여주면서도 지역과 종족에 따라 고유한 풍습이 가미된 형태로 전해져왔다. 특히 믹스킵 마을은 아스테카 문명의 발상지인 멕시코시티 지역에서 망자의 날 전통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멕시코 망자의 날을 위해 마련한 계단식 제단의 모습 (출처:<http://culturacolectiva.com>)

산 자와 죽은 자의 왁자지껄한 해후

그 잔치의 진면목을 목도하고 싶어서 10여 년 전 믹스킥 마을의 공동묘지를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다. 무덤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다 팬스레 무덤증이 일곤 하면 밤거리를 걷다가도 두리번거리는 내게는 하나의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다. 멕시코시티 남쪽을 향해 지하철이 끊기는 곳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렸을까. 길이 2차선으로 좁아들자 도로를 가득 메운 기다란 행렬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로등조차 없던 그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느릿느릿 거북이걸음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기다란 행렬이 으슬으슬 찾아든 가을밤의 냉기와 지레 찾아온 무덤증을 그나마 누그러뜨려주었다. 저들도 모두 나처럼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니 기괴한 연대감을 느꼈고 그 덕분에 안도감이 들었다.

멕시코인은 저승에 머물고 있는 망자가 일 년에 한 번 신의 허락을 받고 산 자들을 만나러 이승을 방문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 ‘특별 연차 휴가’를 받아 산 자들을 만나러 이승에 오는데, 이는 산 자들을 해코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여러 경계들을 가로질러 그간 묵은 회포를 풀러 온다는 것이다. 죽은 자들은 살아생전에 즐겼던 노래와 춤, 음식이 그리워서 이승에 놀러 온다. 다만 죽은 자들은 접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손님들이 아니다. 저승의 집까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고되고 험난하기에 그 길을 되짚어 이승으로 돌아오는 일 또한 매우 수고스럽기 때문이다. 자칫 살아생전에 살았던 곳을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산 자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무사히 살아생전의 가족, 벗들과 만나 편히 쉬고, 마시고, 즐긴 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산 자들은 정성스레 준비를 해야 한다.

믹스킵 마을에서 ‘망자’를 맞는 준비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집집마다 별이 그려진 커다란 종이 초롱을 내걸며 특별한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한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지도 삼아 아기 예수를 찾아왔듯이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이 걸어둔 초롱을 나침반 삼아 생시의 자기 집을 무사히 찾아온다. 이맘때 들녘에는 멕시코인이 망자의 혼이 담긴 것으로 여겨 ‘망자의 꽃’이라 부르는 황금빛 만수국(cempasúchil)이 한가득 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둥근 계란빵 위에 뼈다귀 모양을 흉내 낸 오돌토돌한 반죽을 붙여 ‘망자의 빵’을 만들면서 “슬슬 망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라거나 “망자를 느낄 수가 있어!”라는 식의 기괴한 덕담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이 마을의 ‘망자의 날’ 명절은 10월 31일에서 시작되어 11월 2일 밤에 절정에 이른다. 10월 31일이 되면 아침부터 집집마다 제사상을 차리거나 계단식 제단을 만든다. 망자를 위한 빵과 꽃은 죽은 자들이 오랜 여행 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물, 산 자들의 잔치에 참가하기 전 몸을 정화하기 위해 먹는다는 소금, 죽은 자에 대한 불멸의 사랑을 뜻하는 초, 사악한 기운을 쫓고 제단을 정화하는 나뭇진 향,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다정했던 한때를 담은 사진들과 함께 제단에 놓인다.

이날 밤 자정이 되어 교회 종소리가 묵직하고도 은은하게 울리며 고요한 밤하늘을 덮을 때면, 먼저 이승을 떠났던 어린 영혼들이 속속 살아



‘알룸브라다(Alumbrada)’ 점화식의 시작

(출처: <http://www.excelsior.com.mx/comunidad/2013/11/03/926754#imagen-4>)

생전의 집으로 돌아온다. 어린 영혼을 위한 제단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좋아했을 법한, 밝은 빛깔의 장난감이 놓인다. 그중에는 강아지 모양의 전통 장난감도 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이스쿠인클레(Izcuinle)로 어린 영혼이 너른 저승 세계를 가로지르는 강을 무사히 건너 영원한 안식처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길동무가 되어준 녀석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린 영혼을 맞는 제단에는 오로지 어린이를 위한 물건만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로 어른을 위한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 영혼이 화를 내거나 슬픔에 잠겨 토라진다. 멕시코인은 어린아이의 변덕은 죽어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믿는 눈치다. 이튿날인 11월 1일 아침이 되면, 산 자들은 어린 영혼을 위해 마지막 끼니를 차린다. 대문에서 뜰을 지나 집안에 차려놓은 제사상까지 하얀 꽃길도 만들어놓는데, 아이들이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냉큼 들어와 식사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저승 세계로 떠난 아이들에 대한 아스테카 사람들의 애뜻

한 배려가 전통에 담겨 전해져 온 것이다.

10월 31일 자정부터 11월 1일 정오까지 죽은 어린이들이 이승 방문을 마치고 떠나면, 뒤이어 죽은 어른들이 당도한다. 죽은 어른들이 마을을 찾은 그날 밤엔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잔치가 왁자지껄하게 벌어진다. 마을 광장이나 공터는 온통 전통 악단 마리아치들의 기타와 바이올린 소리, 노랫소리로 가득 찬다.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생전에 즐겼던 춤과 노래에 대한 취향이 변치 않았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죽은 자들의 이승 방문 행사는 11월 2일 저녁이 하일라이트다. 저녁 8시에 교회 종이 울리면 멕시코인이 알룸브라다(Alumbrada)라고 부르는 점화식이 시작된다. 아침 일찍부터 죽은 자들의 무덤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과 톱밥으로 십자가나 성모의 모습을 형상화해 무덤을 꾸미고, 살아생전에 즐겼던 음식과 과일 등을 제물로 올리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낸 산 자들은 점화식 시간이 되면 무덤 주위에 세워 놓은 촛대 위의 기다란 초에 일제히 불을 붙인다.

정확히 바로 그 점화식의 순간에 나는 믹스키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이 공동묘지는 산 자와 죽은 자들이 해마다 다시 해후하고 작별하는 곳이다. 말하자면 버스터미널 출입구, 기차역 대합실, 공항 출입국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졌고 해마다 만남과 헤어짐의 의식을 갖는다. 안개가 괴괴하게 깔린 공동묘지 입구로 들어서자 저만치 가톨릭 성당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왼편으로 보이는 너른 묘지에서는 수천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나뭇진(수지)이 타면서 내는 짙은 연기와 향기가 묘역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 풍경 전체가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려놓은 거대한 사진 한 컷처럼 여겨졌다. 너무 흐릿흐릿하여 하나의 환상적인 이미지처럼 보였다. 사물과 사람들이 모두 윤곽을 잃어버린 채로 뭉개졌고, 안개와 연기의 빛깔 속에서 샛노란 촛불과 황금빛 만수국 꽃이 곳곳에 노란 떡물처럼 번져 있었다. 도무지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예상과 달리 나는 서늘한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오히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연출하는, 만남과 헤어짐의 경이 그 자체였다.

나는 어느 무덤가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검은 그림자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에게 바짝 다가서자 비로소 그 그림자가 네 명으로 이뤄진 한 가족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두들 쌀쌀한 날씨에 맞서고자 외투를 두툼하게 끼입고서 냉기를 내쫓기 위해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이들은 과일을 넣고 필필 끓여 마시는 전통 음료 폰체(ponche)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밤이 지나면 삶의 순조로운 시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상을 방문한 죽은 자들은 모두 다시 그들만의 안식처로 되돌아간다. 서른다섯 살의 과부 테레사 곤살레스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놀러 온 남편을 잘 보내주어야죠.” 갈색 피부의 곤살레스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내게 전한 말은 간절했다. 그 말을 들은 뒤 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빙 휘둘러보았다. 그러자 천 여 명에 이르는 산 자들 사이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 얼핏 얼핏 보이는 듯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서로 나누는 소리들도 들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죽음의 ‘빛깔’을 보았다. 나는 죽음의 빛깔이란 본래 무채색이라고 생각했다. 흑색이나 백색의 무채색, 혹은 도무지 채도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누렇게 거친 삼베 색깔이라 믿었다. 죽음은 그저 채도를 느낄 수 없는 사건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멕시코인에게 죽음은 공동묘지 전체를 화사하게 채색한 황금빛 만수국의 강렬한 빛깔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죽음의 ‘소리’도 들었다. 본래 나는 죽음이란 절대 적막의 세계라서 감히 세속의 그 어떤 잡음도 끼어들 수 없는 경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멕시코인에게 죽음의 소리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주고받는 소곤거림,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생전에 함께 즐기던 악기와 노랫소리, 시끌벅적한 세속의 소리이었다. 나는 또 죽음의 ‘냄새’도 맡았다. 죽음이란 절대 무취의 상태일 것이라는, 세속의 어떤 향기도 침범할 수 없는 세계일 것이라는 선입견도 깨졌다. 믹스키에서 맡은 죽음의 향기는 독한 향냄새에 진하게 스며든 옥수수와 음료, 빵과 테킬라의 향이었다.

아스테카 문명에서 이어온 죽음에 대한 관념

죽은 자들과 벌이는 이 특별한 연례행사는 멕시코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멕시코인 모두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이 된 가족, 친구, 연인과 재회하느라 수선을 피운다.

멕시코 서부 파츠쿠아로(Pátzcuaro) 호수 근방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망자의 날’이 오기 전에 개들의 눈곱을 떼어준다. 망자들이 개의 몸을 잠시 빌려 이승에 도착하므로 그들이 무사히 생전의 집을 찾으려면 개들의 눈이 밝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죽은 자들이 세상에 놀러왔는데도 기다리는 이가 없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상들이 살았던 고대 도시 친춘찬(Tsintsuntzan)에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날을 지새우며 죽은 자들을 맞는다.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이맘때면 도시의 시장마다 ‘망자의 빵’과 ‘망자의 꽃’으로 넘친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와 빛깔의 설탕 해골이나 초콜릿 해골이 오와 열을 맞추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이 해골의 이마에는 ‘마리아’나 ‘호세’ 등의 불멸의 이름들,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노라는 굳은 다짐으로 연인들의 이름들을 아로새겨 놓았다. 죽음마저도 사랑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리라는 불멸의 충심이 사뭇 비장하다. 거리의 가게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해골 남녀 인형으로 쇼윈도를 장식한다. 이름 모를 장인들이 만들어낸, 죽음을 소재로 한 공예품들도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종이와 설탕은 물론이고 낫쇠, 나무, 점토, 동물 뼈다귀로 만든 공예품들이 거리에 넘친다. 그중에는 거울이 달린 작은 방에서 해골 셋이 모여 포커를 치는 손바닥 크기의 미니어처 작품도 있다. 포커 탁자 옆에는 그들이 생전에 즐겨 마셨을 테킬라, 선인장 발효주 풀케가 놓여 있다. 해골 가톨릭 사제와 해골 구두닦이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미니어처도 있다. ‘죽음’은 술과 도박에 환장하던 사람들, 세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제와 구두닦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초등학생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 대학인 멕시코국립대학교(UNAM)의 학생들까지 모두 죽음을 테마로 한

제단을 집단예술작품을 창작하듯이 만들어낸다. 공공기관들도 저마다 제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올린다. 멕시코시티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광장인 소칼로(Zócalo)를 아예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모시켜 여러 예술가들이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후원하기도 한다.

제물과 장식을 손수 만드는 믹스킵 같은 마을과 달리, 대도시에서는 민예품 장인들이 만든 울긋불긋한 색종이 장식을 구입해 제단 주변을 장식한다. 에이포(A4) 용지 보다 조금 큰 색종이에는 옥수수 전병 토르티야(tortilla)를 빗는 해골, 자전거를 타고 빵을 배달하는 해골, 둘러앉아 빵을 나누어 먹는 해골, 기타를 치거나 하프를 켜거나 운하에서 노를 젓는 해골 등등. 이름 모를 멕시코 장인의 손에서 탄생했을, 소박하면서도 해학과 기지가 넘치는 이미지들이 가득하다.

오늘날 멕시코 민족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망자의 날’ 전통은 약 3천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때부터 오늘날 멕시코라 불리는 곳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죽음’을 기리는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전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5세기에 멕시코 고원에서 번성했던 아스테카 문명이다. 아스테카인은 흔히 ‘죽음의 백성’으로 불릴 정도로 죽음에 대한 유별나고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사후 세계는 가톨릭교의 관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 세계는 이승의 삶에 대한 상벌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천당과 지옥 같은 곳이 아니었다. 아스테카인은 사후 세계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었다. 가령 전사하거나 신의 제물로 희생된 포로들, 그리고 출산이라는 거대한 ‘전투’를 치르다 사망한 여성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특히 출산 중에 사망한 여성들은 궁궐 뜰에 묻혔는데, 그 뜰을 비추는 태양신의 동반자가 되라는 뜻에서 그랬다. 아스테카인은 태양신을 섬겼으므로 태양신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였다. 그 특별한 곳에 간 자들은 색동 깃털을 단 아름다운 새가 되어 다시 이승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일로 죽은 사람들, 즉 익사하거나, 비바람과 함께 나타나는 번개에 맞거나,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은 자들이 휴식과 풍요를

누리는 사후세계도 따로 있었다.

물론 자연사로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다. 이곳은 아주 어둡고 창문도 없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충분히 인생을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그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나뭇가지에서는 아이들이 이승에서는 제대로 맛보지 못한 우유가 떨어진다. 아스테카인은 지상의 모든 종족이 멸망하면 저승에서 우유를 먹던 아이들이 다시 이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삶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아스테카인은 어떻게 사느냐에 몰두한 민족이라기보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은 백성이었다.

아스테카인의 생사 관념은 한 무명작가의 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Tenochtitlán)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름은 전해지지 않은 한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는 그저 꿈을 꾸러 왔다네.
 그저 잠을 자러 왔다네.
 진실이 아니라네. 진실이 아니라네
 이 땅에 살러 왔다는 말은

아스테카인은 삶은 찰나에 불과하고 저승이야말로 불멸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고 삶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다.

아스테카 문명의 전성기에 ‘망자의 날’은 무려 한 달간이나 진행되었다. 아스테카인들은 20일씩 18개월로 구성된 달력을 활용했고, 그 달력의 7월과 8월에 죽은자를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실로 ‘망자의 날’이 아니라 ‘망자의 달’이라고 부를 만한 거대하고 유별난 의식이었다. 다만 그 시절에는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네 개의 태양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 다섯 번째 태양의 시대를 산다고 믿었던 아스테카인은 산 자의 피와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태양이 하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

다. 아스테카인은 신들의 희생으로 해와 달은 물론 삼라만상이 탄생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신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희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인신공양의 습속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망자의 날’은 산자가 저승으로 가고, 죽은 자가 이승으로 오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한 축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정복된 뒤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아스테카족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세워 놓은 사후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후 세계는 흑과 백으로 갈렸다. 아스테카족이 매년 성대하게 치르던 죽은 자를 기리던 의식은 아예 중단되었다가, 그 뒤 사흘로 대폭 축소되었고 날짜도 카톨릭 전통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독교 성인 모두를 기념하는 11월 1일 만성절(萬聖節)과 이교도의 풍습을 없애기 위해 제정한 11월 2일 만령절(萬靈節)로 옮겨진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가톨릭 전통과 본래의 전통을 섞는 방식으로 고유의 문화를 보존해나갔다. 원주민들은 더 이상 아스테카 사람들처럼 산자를 태양신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튿날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버리거나 죽은 자들과 만남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죽은 자를 위한 제단에 가톨릭교회의 성모 이미지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멕시코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게 된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 ‘메스티소’들은 지배자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자신의 갈색 피부색을 닮은 과달루페 성모를 만나는 데 성공했고 그 이미지로 제단을 새롭게 꾸몄다.

멕시코의 민속 신앙인 죽음에 대한 경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예술 작품의 테마가 되기도 했다. 예컨대 ‘해골의 판화가’라 불려도 좋을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José Guadalupe Posada)가 창조해낸 이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풍자의 칼 맛이 신랄하다. 20세기초 위대한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민중 미술가의 전형’이라고 상찬한 과달루페 포사다가 목판에 새기지 못할 소재는 없었다. 멕시코 정치와 사회 현상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술 자체도 이 위대한 예술가의 예리한 풍자를 피해가지 못했다.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의 창을 쥐고 질주하는 해골의 기사 그림
(출처: <http://culturacolectiva.com/>)

포사다는 창을 쥐고 질주하는 해골의 기사, 화려한 모자를 쓴 상류층 해골 여성 등 해골 이미지로 독재자와 부자들이 지배하던 혁명 전야의 멕시코를 마음껏 조롱했다. 그는 해골을 단골 이미지로 삼은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다. “죽음은 민주적이다. 백인이건 혼혈이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인간은 결국 해골이 된다.” 그는 멕시코 사람들이 삶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고, 오직 죽음 앞에서만 평등하다는 것에 깊은 분노를 느꼈는데, 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망자의 날 전통 덕분에 멕시코 민중에게 친숙해진 해골 이미지를 마음껏 활용했다. 그때부터 망자의 날 제단을 과달루페 포사다가 창조한 이미지로 장식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오늘날 망자의 날 의식에는 원주민 전통과 가톨릭 전통은 물론이고 현대문화의 요소까지 두루 섞여 있다.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과거와 현재의 만나서 새롭게 탄생한 망자의 날도 멕시코 인구의 다수가 그러하듯 혼혈의 산물이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에는 오사마 빈 라덴과 조지 부시의 얼굴이 망자의 날 제단 곳곳에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는 제단 경연에서는 그해에 벌어지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단골 소재가 된다. 현대적 사건들이 ‘망자의 날’ 전

통과 결합되어 새로이 재해석되고 전통을 풍요롭게 만들어왔고, 이를 통해 ‘망자의 날’은 꾸준히 진화해왔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죽음의 의미를 숙고하다

일찍이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는 『고독의 미로』(El laberinto de la soledad)라는 에세이에서 멕시코인의 죽음에 대한 고유한 태도를 이렇게 비평했다.

뉴욕, 파리, 런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평소 입 밖에 내기가 꺼림칙한 말이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을 자주 얘기하고, 죽음을 놀리고 으르며, 죽음과 함께 잠들고 함께 잔치를 연다. 죽음은 멕시코인이 좋아하는 장난감 가운데 하나이고, 멕시코인의 가장 오랜 연인이다.

파스가 지적하듯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멕시코인처럼 1년에 한 번씩 죽은 자들과 해후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죽음에 대해 집단적으로 숙고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통념들이 산산조각났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진실이 하나 있다면 수십억의 산 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다 해도, 단 한 명의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인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인은 산 자들이 사는 세상은 바로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것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아스테카 사람들은 어제 죽은 자들이 오늘 아침 동쪽으로 해를 솟아오르게 만든다고 믿었다. 현대 멕시코인은 죽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인연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간파하고 있다. 요컨대 삶과 죽음이 그토록 적대적이란 사실을 결코 수긍하지 않는다. 이들은 죽음과 삶이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인생의 양면이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해마다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승에 초대해서 왁자지껄한 잔치판을 벌인다.

우리에게 죽음은 잔치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삶과 영원히 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순조로운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사건처럼 여겨진다.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맞닥뜨리는 수천 길의 낭떠러지 같은 것.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다시 이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산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죽은 자들은 산 자들과 만나러 오지 않는다. 어차피 이승에서도 휴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한국인들이 죽은 뒤에 특별한 휴식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혹여 죽은 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승을 찾아온다 해도 그들을 반겨줄 여유가 산 자들에게 과연 있을까? 이 땅의 산 자들은 삶에 분주한 나머지 죽은 자들을 만날 겨를이 없어 보인다. 아마 죽은 자들의 방문을 눈치 채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중도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짬을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 가장 심오한 철학을 가졌던 아스테카 사람들조차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훈육 속에 자란 청소년들이 국가의 방치 아래서 폐죽음을 당하고, 생의 희열보다 절망을 먼저 느껴버린 청년들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노동의 보람을 잃고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공포를 간직한 채 해고자들이 목을 매고 죽어갔다.

우리가 죽은 자들과 해후할 수 없다면, 죽은 자들과 잔치를 벌일 수도 없다면,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엄연히 죽은 자들과의 인연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죽은 자에 대해 마땅히 짚어져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박정훈 — 전 라틴아메리카 전문 기자